

MONTHLY REPORT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4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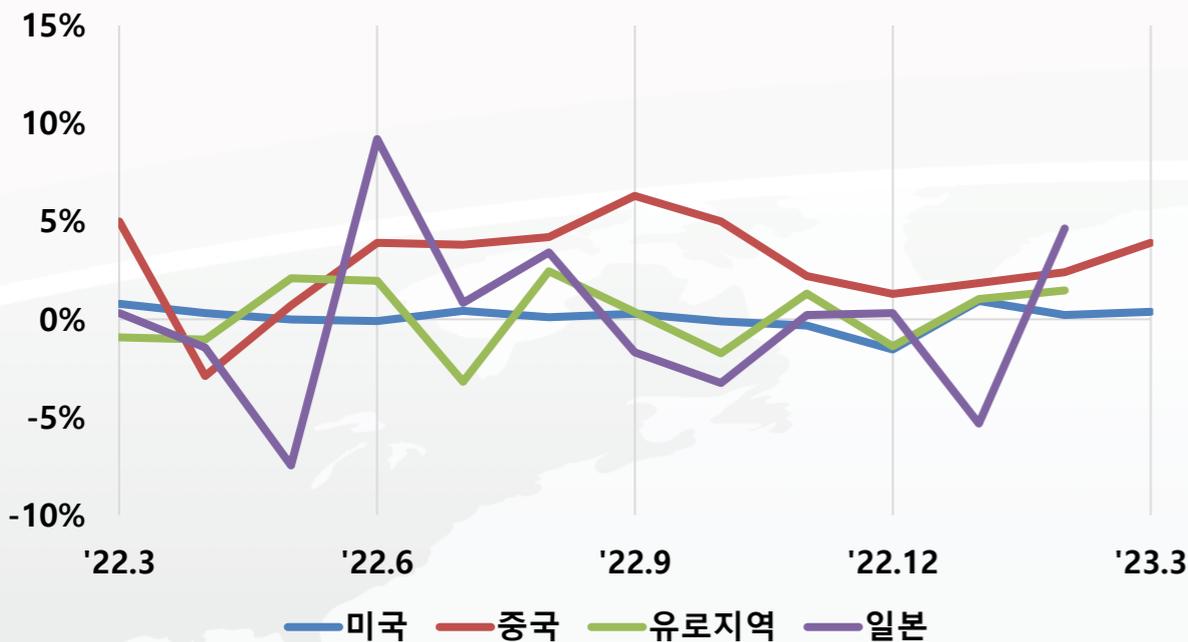
 Korea Eximbank
WE FINANCE GLOBAL KOREA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미국 경기둔화 양상,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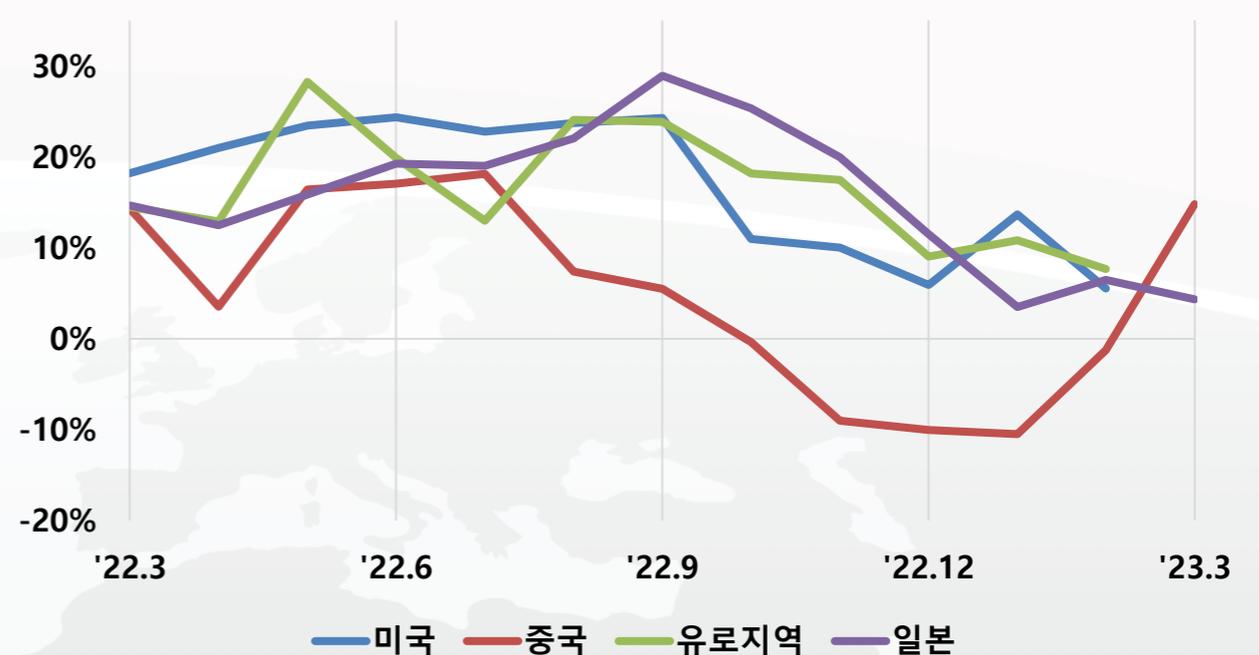
- **(미국) 생산 둔화, 소비 감소, 취업자 증가폭 축소 등 경기 둔화 국면 진입 가능성 확대**
 - 3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.4% 성장, 소매판매(△1.0%)는 2개월 연속 감소,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+23.6만명) 전월 대비(+31.1만명) 감소
 -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 +5.0%로 전월(+6.0%) 대비 하락, 근원물가상승률(+5.6%)은 전월 (+5.5%) 대비 소폭 확대
- **(중국) 경제 리오프닝 이후 소비 확대 및 수출 회복 지속**
 - 3월 산업생산 증가율 +3.9%(전년동기 대비)로 1~2월(+2.4%) 대비 상승,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0.6%, 수출은 15% 증가
 - 3월 제조업 PMI 지수(51.9)는 2월(52.6) 대비 상승하며 소폭 하락했으나 3개월 연속 경기판단 기준치(50) 상회
- **(유로존) 산업생산 회복 불구 소비 부진 지속, 소비자 물가 상승세 다소 진정**
 - 2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1.5% 증가, 소매판매는 0.8% 감소, 3월 전산업 PMI 지수는 53.7로 전월(52.0)대비 상승
 -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+6.9%로 전월(+8.5%) 대비 큰 폭 하락
- **(일본) 산업생산 및 소비 회복 양상,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**
 - 2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4.6%) 큰 폭 증가,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6.6% 증가, 소비자물가 상승률 +3.3%로 상승세 진정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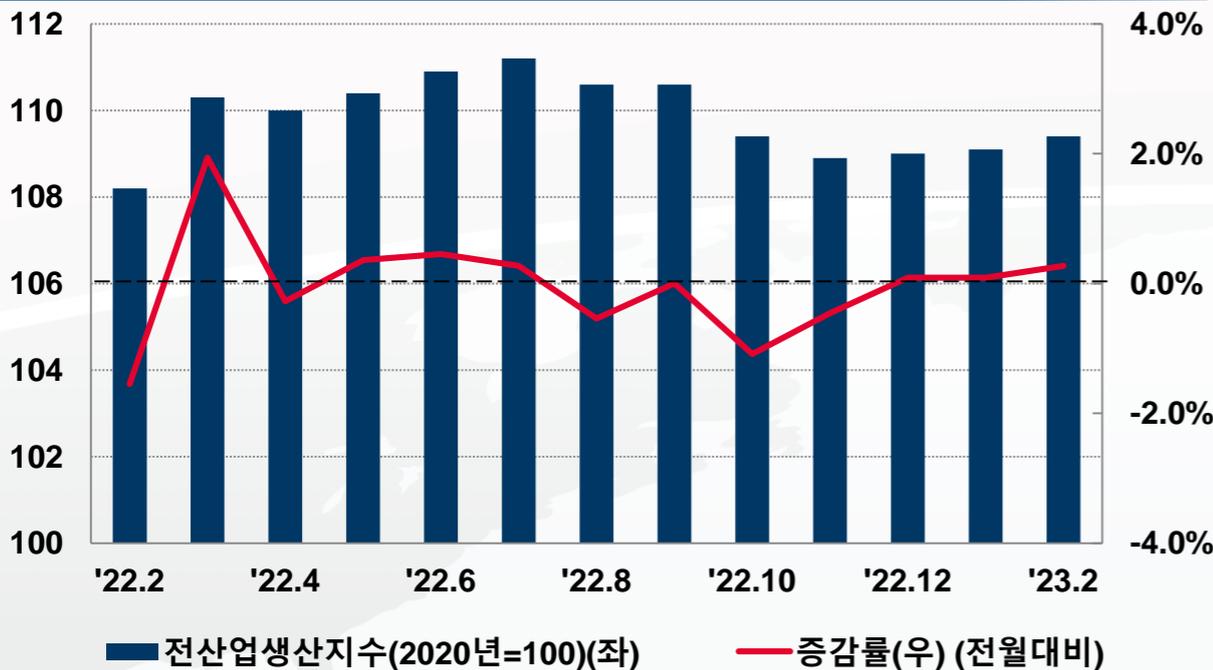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생산은 광공업 감소·서비스업 증가,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하락세 지속

- (생산) 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늘어 전월 대비 0.3% 증가
 - (광공업 : $\Delta 3.2\%$) : 1차금속 (+5.1%) 등에서 늘었으나, 반도체($\Delta 17.1\%$), 자동차($\Delta 4.8\%$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+0.7%) : 정보통신($\Delta 4.0\%$) 등에서 줄었으나, 운수·창고(+5.4%), 숙박·음식(+8.0%) 등에서 증가
- (경기) 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5p)는 건설수주액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0.3P 하락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경기 둔화로 수출 감소 지속, 자동차·이차전지 등 차 관련 품목은 호조

- 3월 총수출은 55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13.6\%$), 무역수지($\Delta 46.2$ 억 달러) 적자 지속
 - 자동차 수출 호조로 미국·중동 수출은 증가, 경기 위축 영향으로 중국($\Delta 33.4\%$), 아세안($\Delta 21.0\%$) 등은 감소
 - 자동차(+64.2%), 이차전지(+1.0%) 등 차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, 반도체($\Delta 34.5\%$), 석유화학($\Delta 25.1\%$), 철강($\Delta 10.7\%$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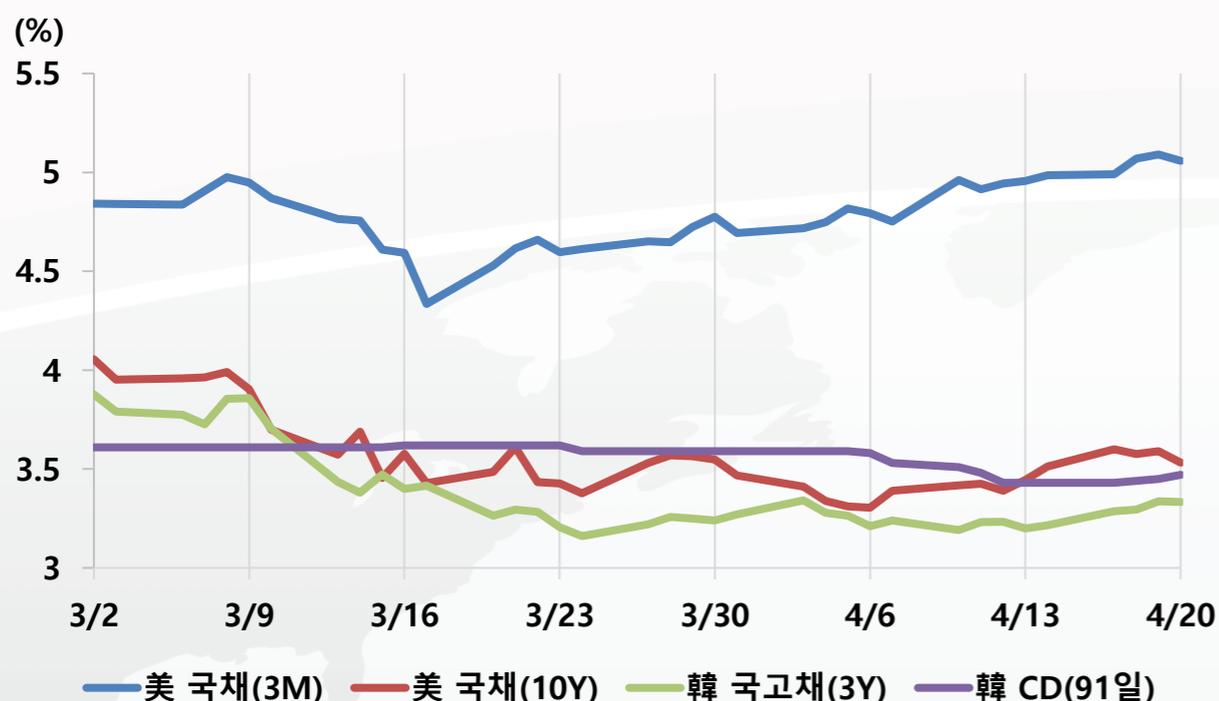
수출 추이

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- **금리 : 미국 경기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**
 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, 3월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미연준의 긴축완화 기대로 소폭 하락하며 3.3%대를 기록한 이후 미연준 의장 등의 5월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3.6%대로 상승
 - 단기물인 미국채 3개월물은 3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5.1%대를 기록(4.19)
 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경기 부진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(4.11)로 3.2%대로 하락한 이후 미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3.3%대로 소폭 상승
- **환율 : 원/달러 환율, 미금리 전망 변화에 따라 하락후 상승 반전**
 - (원/달러 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국 경기 지표 악화에 따른 미연준 정책전환 기대감 등으로 일시적으로 1,300원/달러 이하로 하락했으나 이후 수출부진 지속 미달러화 강세 전환 등으로 1,320원/달러 수준 유지
 - (엔/달러 환율) 엔/달러 환율은 미금리 정책 변화 전망에 따른 미달러화 가치 변동 양상에 동조하여 3월말 130엔/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135엔/달러 대 유지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는 OPEC+ 추가감산 결정으로 상승,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둔화로 약세 지속

- (원유) OPEC+의 추가 감산 단행(116만 b/d, 4.2) 발표로 4월 중순 배럴당 80달러 후반대까지 상승(4월13일, 두바이유 \$87.36/bbl) 이후 미국 경지기표 부진 등 경기침체 우려로 80달러 초반대로 하락
 - OPEC+ 기존 감산(200만 b/d) 및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(50만 b/d) 물량에 추가감산 물량을 합할 경우 OPEC+ 총 감산 물량은 366만 b/d로 이는 전 세계 수요의 3.7% 수준
- (천연가스) 미천연가스 가격은 온난한 날씨 예보에 따른 난방용 수요 둔화 전망, 최근 5년간 평균대비 약 19%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약세, 다만 견조한 LNG 수출로 가격 하락이 제한되며 3월말 이후 mmBtu당 2달러 초반대 유지
 - 미국 Freeport LNG 수출 터미널이 작년 폭발 사고 이후 부분적으로 재가동하는 등 미국 LNG 수출량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4년말에는 월평균 13 bcf/d를 넘어설 전망(미국 LNG 평균 수출량: '22.3Q 9.74 bcf/d → '23.1Q 11.62 bcf/d)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3월 세계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은 모두 다소 부진

3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선주들의 관망세가 확산되며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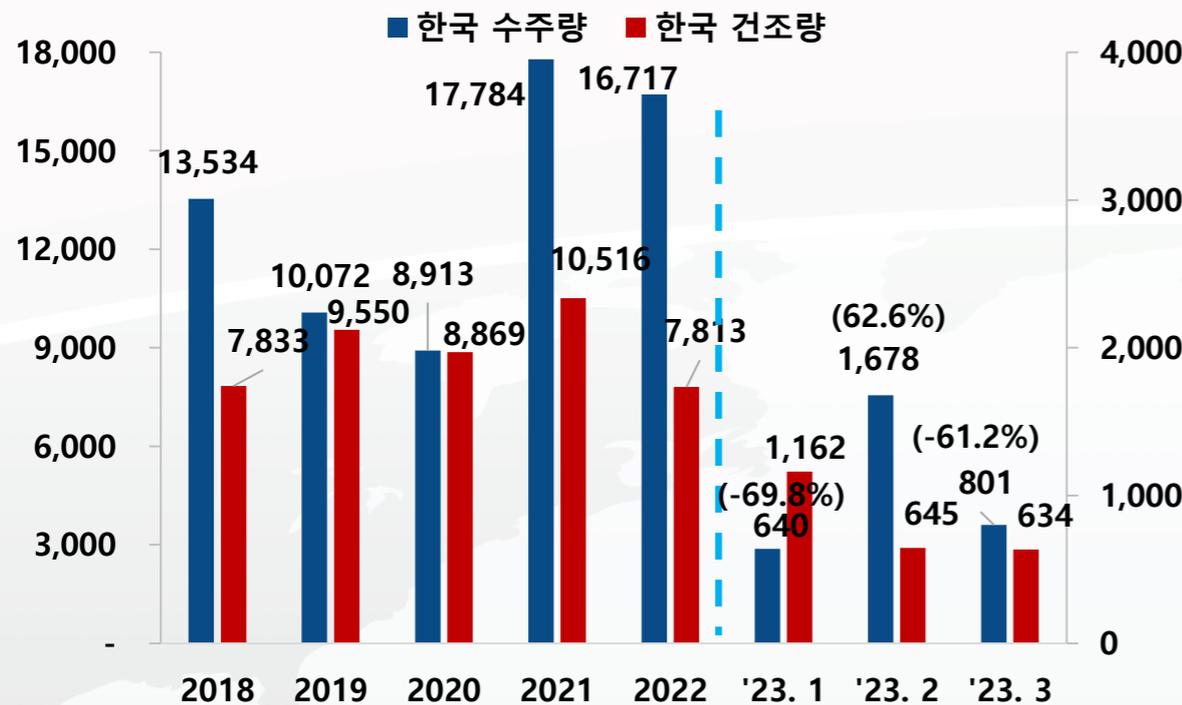
- 3월 세계 발주량은 244만CGT(전년동월 대비 Δ 49.0%), 3월 누적 발주량은 707만CGT(전년동기 대비 Δ 45.7%)
- 3월 한국 수주량은 80만CGT(전년동월 대비 Δ 61.2%), 누적 수주량은 312만CGT(전년동기 대비 Δ 30.2%)
- 3월 한국 수주액은 23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56.1%), 누적 수주액은 89.7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Δ 34.3%)
- 3월 발주 시장은 LNG선, LPG선 등 가스선의 호조와 비교적 다양한 선종의 발주가 있었으나 대체로 부진한 수준임
- 한국은 LNG선 등 가스선의 수주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으나 월 실적적으로는 다소 부진한 수준

3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건조활동이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

- 3월 수출액은 11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24.3%)로, 3월 누적 수출액은 41.2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+2.6%)
- 아직 고선가 물량 인도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력난 등에 의한 건조활동 제약 등도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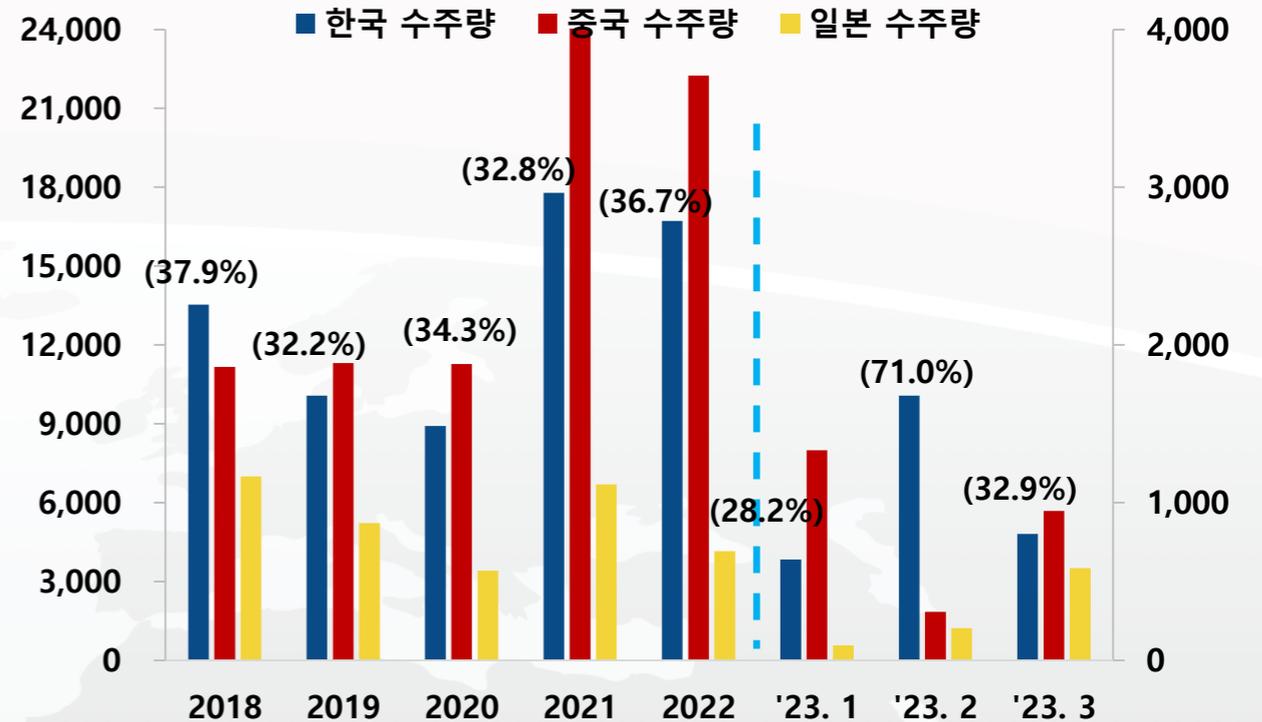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주 :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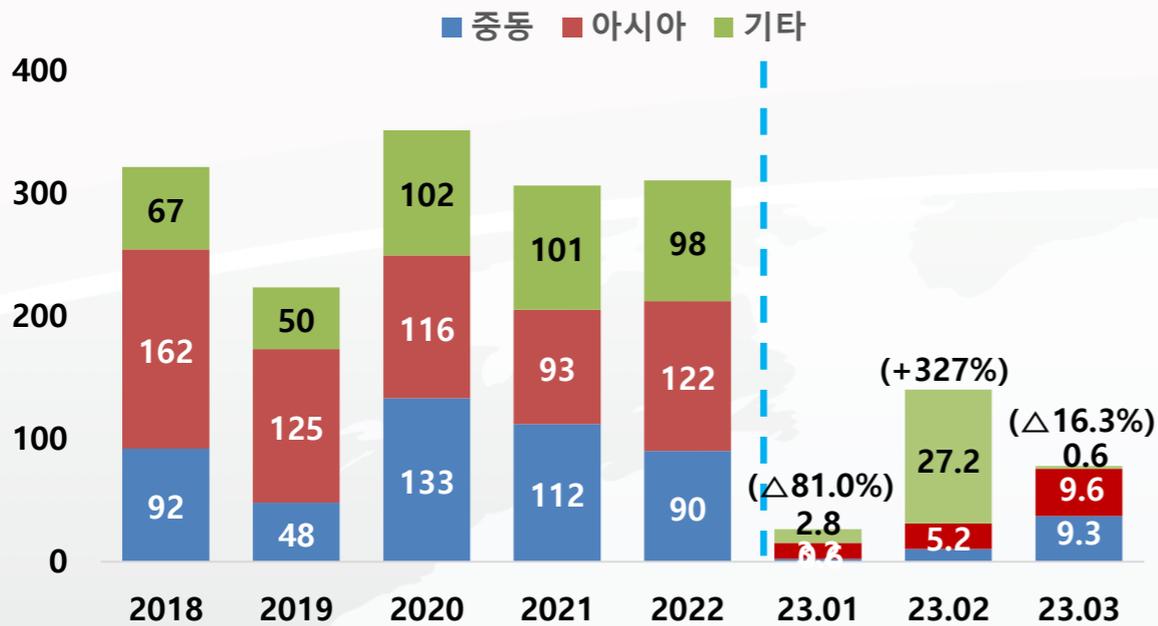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3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6.3% 감소한 19.5억 달러

- (지역별) 3월 수주액은 중동 9.3억 달러, 아시아 9.6억 달러, 북미 0.2억 달러, 유럽 0.2억 달러 순
 -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를 8.8억 달러에 수주, 쌍용건설은 두바이 키파프 개발 사업을 1.3억 달러에 수주
- (공종별) 플랜트 17.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00%), 건축 1.7억 달러(△50%), 토목 수주는 제로
- 1분기 누적 수주액은 6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.5% 감소,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88% 증가한 12.4억 달러, 아시아 수주액은 18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3.4% 감소
 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27.4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6.5%), 건축 24.7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155%), 토목 3.7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61.4%)를 기록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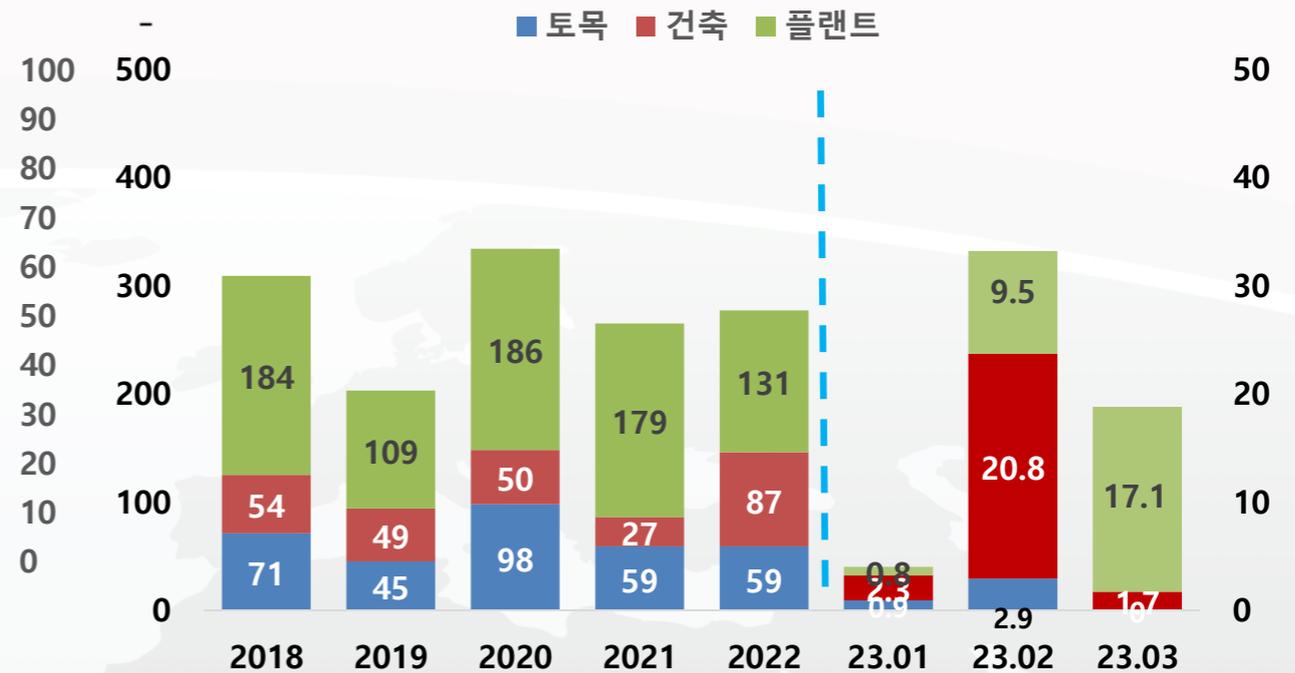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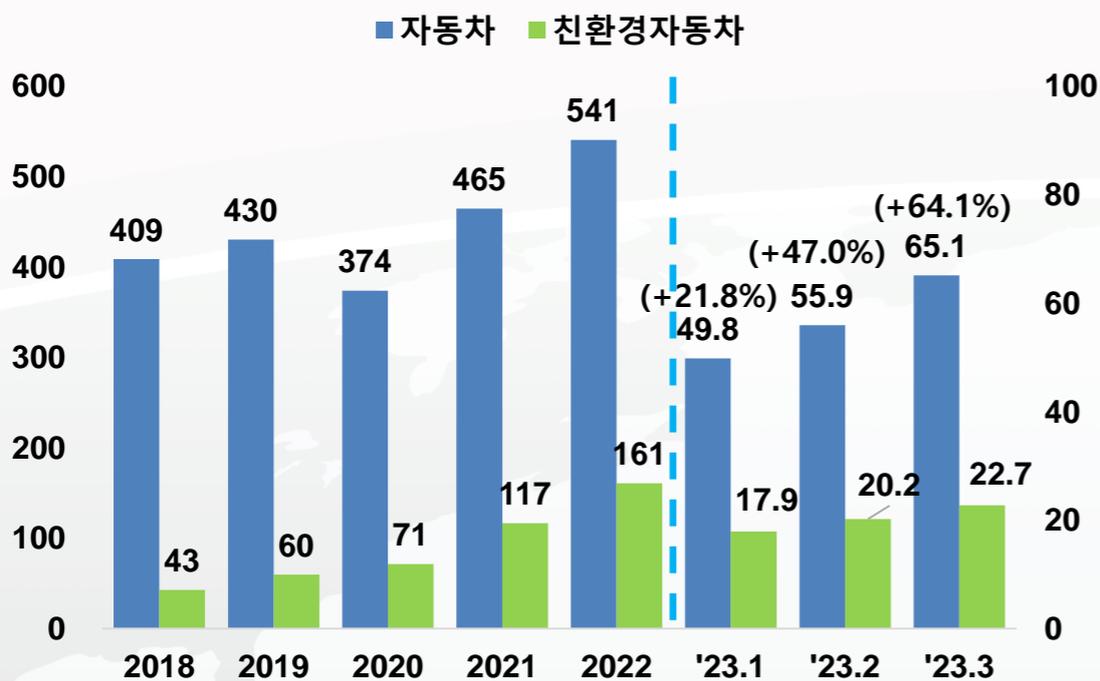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3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65.1억 달러, 20.6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.1% 증가한 65.1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94.7% 증가한 22.7억 달러 기록**
 - SUV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이 지속되며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액 달성
 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94.7%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금액 달성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2년 3월) 29.4% → ('23년 1월) 36.0% → ('23년 2월) 36.1% → ('23년 3월) 34.9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3년 3월 대수기준) : 순수전기차(47.9%), 하이브리드(43.6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8.5%), 수소차(0.04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.3% 감소한 20.6억 달러**
 - 3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미국, 중국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 대비 5.3% 감소한 20.6억달러 기록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3년 3월) : 북미(34.6%), 아시아(24.6%), 유럽(24.1%), 중남미(12.0%), 중동(3.9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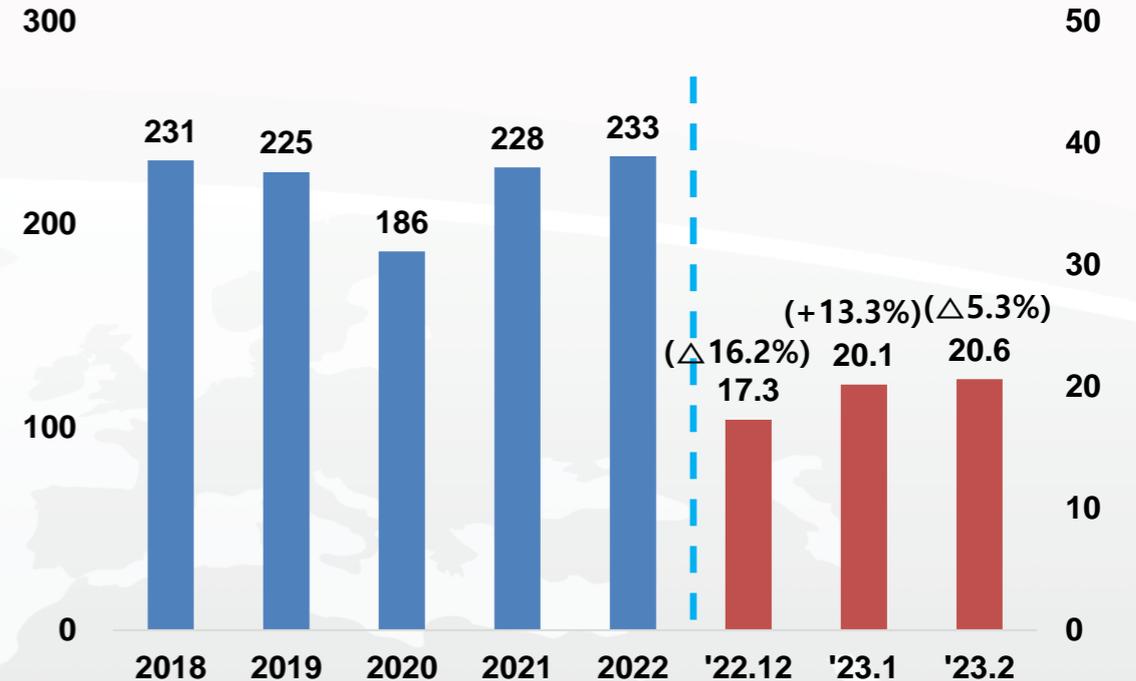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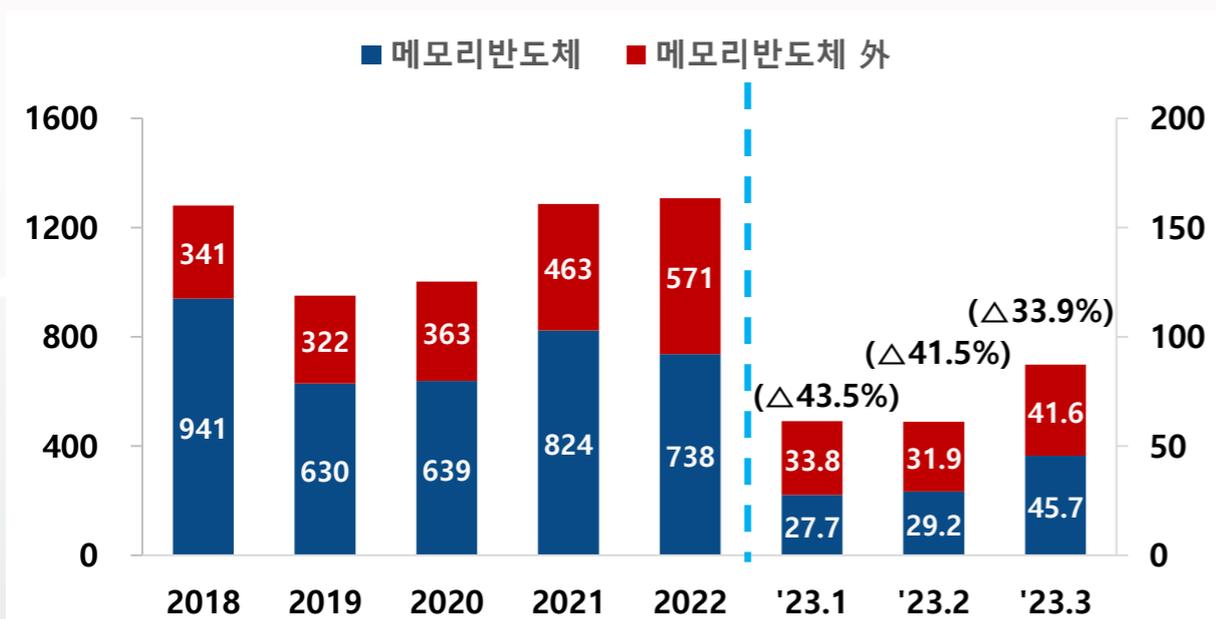
반도체·디스플레이

3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33.9%, △41.4% 기록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3.9% 감소한 87.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
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수요둔화,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4.3% 감소한 45.7억 달러 기록
 - 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1~4)3.41 → (5~6)3.35 → (8~9)2.85 → (10~12)2.21 → ('23.1~3)1.81 (트렌드포스)
 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8.4% 감소한 36.3억 달러 기록
 - 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% 감소한 26.1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한 9.8억 달러 기록
 - *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3)90.0 → (4)89.9 → (7)91.2 → (10)96.8 → (12)85.6 → ('23.1)81.4 → (2)78.6 → (3)79.4 (한국은행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1.4% 감소한 14.3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역성장
 - OLED 수출은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5.9% 감소한 9.1억 달러 기록
 - 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3)51.6 → (4)52.1 → (7)53.9 → (10)57.0 → (12)51.8 → ('23.1)48.5 → (2)49.4 → (3)50.7 (한국은행)
 - LCD 수출은 LCD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.3% 감소한 2.8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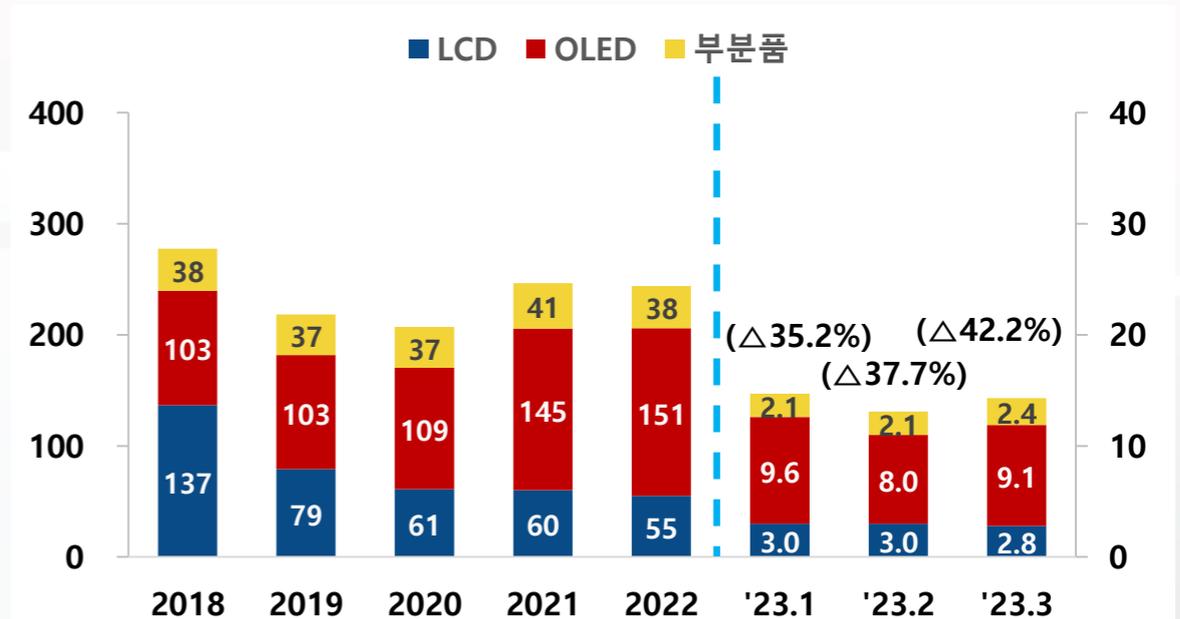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3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9.3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11.3% 감소

• 휴대폰 수출은 글로벌 ICT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49.3% 감소한 8.3억 달러 기록

- (완제품) 휴대폰 완제품 수출액은 글로벌 ICT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(△66.4%)한 2.6억 달러 기록

*미국(1.0억 달러, 전년 동월 대비 △47.1%), 영국(0.4억 달러, △62.8%), 독일(0.3억 달러, △67.5%) 등 스마트폰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액 크게 감소

- (부분품)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를 의식한 주요 생산기지의 부분품 주문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34.1% 감소한 5.7억 달러 기록

*최근 4개월 간 對중국 휴대폰 부분품 수출액: 5.7억 달러('22.12월) 8.1억 달러('23.1월) 5.9억 달러('23.2월), 3.4억 달러('23.3월)

• 통신장비 수출은 기지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1.3% 감소한 1.6억 달러 기록

- (기지국 장비) 부품 수출액이 크게 감소(전년동월 대비 △46.1%)하여 전년동월 대비 45.0% 감소한 0.1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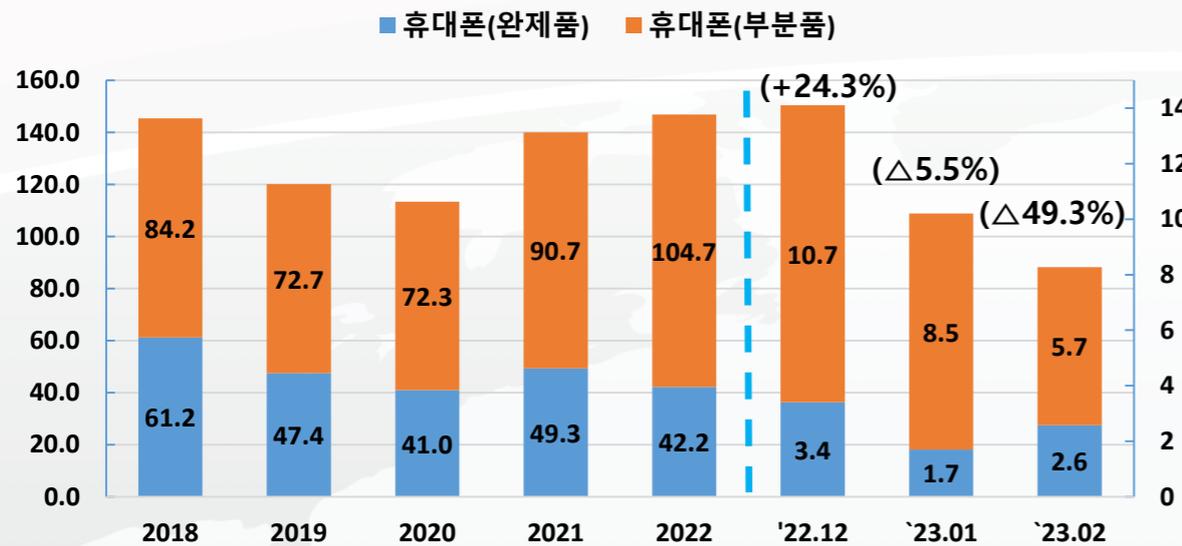
*'22년 3월 기준, 기지국 부품 주요 수출국인 일본(전년동월 대비 △79.9%), 미국(△38.4%), 캐나다(△69.3%)으로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

- (중계기·모뎀) 아시아, 유럽으로의 수출지속으로 글로벌 수요둔화에도 비교적 적은 감소폭(△7.6%)을 보이며 1.5억 달러 기록

*최근 對아시아·유럽 수출이 증가 중('23.3월 기준: 홍콩(660만 달러, 전년 동월 대비+371%), 싱가포르(406만 달러, +92.3%) 독일(397만 달러, +235.9%) 등)

휴대폰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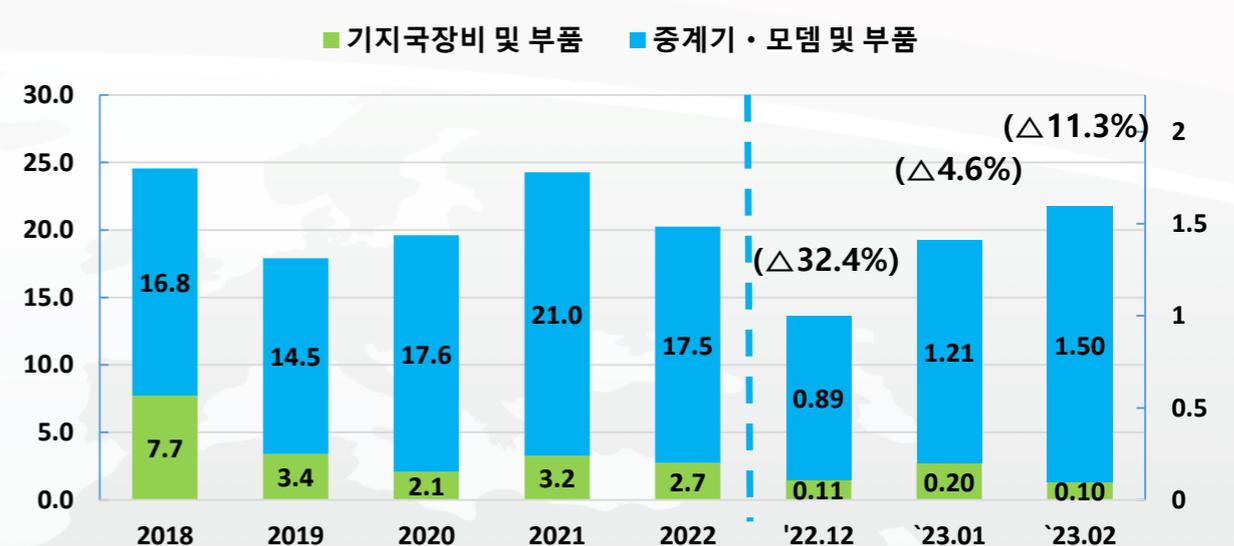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